

✓ 설명 포함 강조 모드

애들아, 오늘은 개항 이후 조선이 일본, 미국과 맺은 조약들, 그리고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리해볼게! ★ 시험 포인트 많으니까 집중!★

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과의 후속 조약들

- ★7조: 일본이 조선 해안 측량 가능★ → 이거 진짜 문제야. 해안 정보 다 빼가면 나중에 침략에 써먹을 수 있잖아? ※시험에 꼭 나옴※
- ★10조: 일본이 자국민 재판권 행사★ →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 저질러도 조선 법으로 처벌 못 해.
- 일본 화폐 사용 허용 → ★경제 혼란★ 초래, 조선 화폐 체제 무너짐
- 곡물 수출 규제 없음 → 쌀값 폭등, 농민들 생계 위협
- ★관세 부과 없음★ → 조선 산업 보호 장치 없음, 일본 제품과 경쟁 못 함

✓ 결과: 조선 경제와 주권에 큰 타격!

조·미 수호 통상 조약 (1882)

- 조선-서양 최초의 조약, 청나라 중재로 체결됨
- ★1조: 거중 조정★ → 제3국과 분쟁 시 미국이 중재
- ★4조: 치외법권 인정★ (영사 재판권)
- ★5조: 관세 부과 가능 (단, 상한 10%)★ → 일본보다 유리
- ★14조: 최혜국 대우★

✓ 의미: 서양과의 본격 외교 시작,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 조약

개화 정책과 사절단 파견

개화 추진을 위해 여러 나라에 사절단 보냄!

1. 수신사 - 일본에 외교 목적으로 파견 (2차 대표: 김홍집, 『조선책략』 가져옴)
2. 조사사찰단 - 일본의 근대화 실태 시찰
3. 영선사 - 청나라에 무기, 군사 기술 학습 위해 파견
4. 보빙사 - 미국에 외교 사절단 파견 (대통령 접견, 신문에 나오음!)

✓ 시험 포인트: 각 사절단 목적과 대표 인물 기억할 것!

개화 정책 추진

- 총리기무아문 설치 → 개화 정책 총괄 기구
 - 별기군 창설 → 일본식 훈련 도입
 - 기기창 → 무기 제작소
 - 박문국 → 최초 신문 『한성순보』 발행
 - 전환국 → 화폐 발행
 - 동문학 → 통역관 양성기관
-

위정척사 운동

→ 개화 반대! 전통 질서 수호 주장

- 성리학 바탕, “★바른 것(성리학) 지키고 사악한 것(서양, 일본) 배척★”
- 대표 슬로건: 척화주전론 (싸워야 한다!)

연대별 특징: 1. **1860년대**: 흥선대원군 집권, 병인양요/신미양요 저항, 척화비 건립 2. **1870년대**: 윤영호 사건 이후, 일본 = 서양과 다르지 않음! 수교 반대 3. **1880년대**: 조선책략 유입 이후, 미국과 수교 강력 반대 (홍재학 상소, 영남 만민소 등)

✓ 시험 포인트: - 연도별 위정척사파 주장 변화 흐름! - 조선책략 주장 vs 반대 논리 비교 (청나라 입장, 러시아 견제, 미국 연결 주장 등)

🔗 마무리 이 시기는 조선이 외세와 맺은 조약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봐야 해. 조약 내용 하나하나, 그에 대한 찬반 주장, 사절단 활동과 개화·척사 논쟁까지!

★이거 다 정리되면 개항기 완전 마스터다!★